

보도시점 2026. 10. 16.(금) 12:00 배포 2026. 10. 16.(금) 09:00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 이 부총리, 취임 후 한달여 만에 주요 다자 국제무대에 첫 참여
- 日·英·濠·獨·싱가포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 ADB 총재와 양자 면담 진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이 부총리)은 10.15(목) 태국 방콕(Bangkok)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과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하는 마지막 대면 재무장관회의이다. 이 부총리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 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

먼저 이 부총리는 세계경제 논의에서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고금리 대응, AI 등 신기술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을 주문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재무트랙 논의를 정리하며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부채 문제, 금융안정·규제 개선 및 금융이해력 제고 등 핵심 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의장국으로서 미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한국이 미국, 영국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트로이카*를 구성하는 만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트로이카(Troika): 주요 20개국(G20) 전임·현임·차기 의장국 3개국간 협력 체제로, 핵심 의제의 연속성과 및 정책 조율을 통해 G20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②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

이어 이 부총리는 10.15일(목) 저녁,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은 지난 5월에 이어 10월에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역대 최초로 연속 초청받았다. 이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세계경제와 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세계 경제에서 특정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타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

이 부총리는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리더십과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폭넓은 거시경제 정책, 구조 개혁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과 같은 세계경제 주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7개국(G7) 내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거버넌스를 통한 포괄적인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이후 아프리카를 주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부대행사(Side Event)에도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 및 아프리카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함께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균형있는 성장과 효과적인 국제 파트너십(ODA)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같이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한-아프리카 장관급 회의(KOAFEC)와 같이 한국은 아프리카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③ 주요국 재무장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결과 】

한편, 이 부총리는 금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일본·영국·호주·독일·싱가포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과 상견례를 겸한 양자 면담을 가졌다.

먼저 이 부총리는 이른 아침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만나 올해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의 공동 의장(Co-Chair)을 수임하며 양국이 보여준 팀워크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양국이 다자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직 시절인 '21.11월 국내 요소수 수급난 당시 호주 측에서 긴급 물량 확보에 협조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풀 어사이드(pull-aside) 방식으로 약식 면담을 가졌다. 독일 측은 양국이 제조업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간 핵심 파트너 관계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화학·제약 등 독일이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에서 피지컬 AI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주요 AI 투자 내용을 소개하며,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측은 2027년 의장국인 영국 측의 재무트랙 운영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청년 고용 등 경제 회복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양국 재무당국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힐리 장관은 이 부총리가 새로운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역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이 연이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양국간 트로이카를 형성하여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금년도 주요 20개국(G20) 초청국인 싱가포르 인드라니 투라이 라자(Indranee Thurai Rajah) 재무부 제2장관과 만나 양자 및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을

수입할 예정으로,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이 추진중인 **전략형 국부펀드**와 관련하여 ‘테마섹’(Temasek Holdings)을 운영중인 **싱가포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라자 장관도 흔쾌히 호응**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9월 14일 칸다 총재의 방한 및 대통령 예방 시 논의되었던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원전 등 주요 분야 협력**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정상외교 성과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한국 인력**의 아시아개발은행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운호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송기선 (steamship@korea.kr)
			사무관 피재원 (jwphi@korea.kr)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변재만 (byun221@korea.kr)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안영환 (ynghwn@korea.kr)
	대외경제국 신통상분석과	책임자	과 장 최병석 (044-215-7650)
		담당자	사무관 강동근 (kdk212korea.kr)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교은 (044-215-7740)
		담당자	사무관 허창혁 (changhyukheo@korea.kr)